

이슬람에 대한 책갈피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및 한국기독교학생회(IVF)의 총무를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으로 있다.

“이슬람”은 그 주제의 범위가 그야말로 한없이 넓고 넓다. 이 단어는 이슬람 신앙 체계를 의미할 수도 있고, 매우 넓게는 아랍인의 역사나 무슬림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뜻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반대로 상당히 좁게 꾸란에 나타난 신관이나 “알라”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다. 또 주제에 접근하는 이의 관심사가 선교 사역인지, 문명의 충돌이나 사회적 공존의 사안인지, 아니면 테러리즘인지에 따라서도 “이슬람”이라는 이슈는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부각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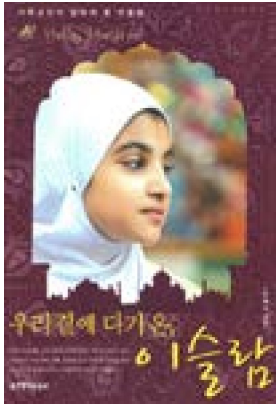
그러니까 “이슬람” 연관 서적들이 종류와 가치를 다 열거할 수 없는 정도로 수북히 쌓여 있다 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필자는 이 수많은 주제의 서적들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

에 해당되는 책자들을 2권 혹은 4권씩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이 세 가지 범주도 완전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주제의 가닥을 잡는 데는 유용한 방편이 되리라고 믿는다.

첫째 범주: 무슬림의 신앙과 삶

가장 우선적으로 소개할 책들은 무슬림의 문화 생활 전반에 대한 것이다. 사실 무슬림은 그리스도인의 경우와 달리 종교와 일상적 삶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곧 소개될 책자의 내용에는 종교, 문화, 생활 등이 함께 등장할 것이다.

우선 제일 먼저 등장하는 두 권의 책은 모두 한국인의 저술이다.



유해석 지음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저자는 한국인 선교사로서 이집트에서의 현지 사역과 웨일스 대학교 이슬람학부에서의 수학으로 경력을 쌓은 인물이다. 원래 이 책은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쓰였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둘째 범주의 책자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일반적 이슬람 안내서로서 손색이 없다고 여겨져 첫째 범주에 넣었다.

책자는 크게 1,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이슬람

- 제1장 이슬람과 무슬림 무엇이 다른가?
- 제2장 무슬림, 그들은 누구인가?
- 제3장 기독교인은 왜 이슬람을 알아야 하는가?
- 제4장 이슬람의 교리: 그들은 무엇을 믿는가?

2부 무슬림에게도 필요한 복음

- 제5장 꾸란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제6장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할 내용
- 제7장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해야 할 사항
- 제8장 이슬람의 질문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
- 제9장 이슬람 선교를 위해 넘어야 할 장벽들

이 책은 이슬람에 대해 철저히 문외한인 사람들도 쉽게 접근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의 설명이나 논점의 전개가 유연하고 자연스럽다. 그렇다고 하여 절대로 내용이 피상적이거나 핵심 이슈가 빠져 있다거나 하지는 않다. 책을 읽다가 보면 정말로 이슬람의 기본을 파악하게 되고, 무슬림 전도와 관련하여 어떤 식의 접근을 시도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책 역시 한국인에 의해 쓰인 책자이다.



공일주 지음,
「이슬람과 IS」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이 책의 저자는 아랍어, 아랍어 교육, 꾸란 연구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이슬람 학자이다. 책의 내용은 제목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자세해서, 단지 IS에 대한 소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이 점을 알려면 책의 목차를 참조하면 된다. 총 35장으로 구성된 이 책자는 크게 보자면 4부로 나뉘어 있다.

제 1 부 현대 무슬림의 정체성 (9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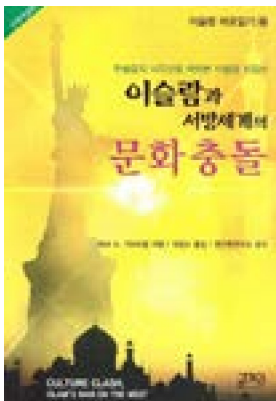
제 2 부 이슬람의 종교의식 (7장)

제 3 부 이슬람의 교리 (9장)

제 4 부 이슬람 철학과 사상 (10장)

각 부의 마지막 장은 IS를 소개하는 데 할애되어 있지만, 각 부는 IS 소개 이전에 각각 현대 무슬림의 정체, 종교의식, 교리, 철학과 사상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얼마든지 이슬람의 신앙과 삶에 대한 — 그러나 여타의 도서보다 좀더 전문적이고 수준이 높은 — 표준적 안내서로 손꼽힐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책은 이집트의 명문 무슬림 가문에서 이맘과 교수로 활동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의 작품이다.



마크 A. 가브리엘 지음,
최상도 옮김,
「이슬람과
서방세계의 문화충돌」
(서울: 글마당, 2009).

이 책의 저자에 대한 소개문에 접하면 책을 읽기도 전에 궁금증과 기대감이 솟구친다. 그는 전형적인 명문 이슬람 집안에서 태어나 12세에 이미

꾸란을 모두 암송했고, 이슬람 명문 교육 기관인 알 아즈하르 대학교(Al-Azhar University)에서 이슬람 역사와 문화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동시에 이슬람 모스크에서 이맘으로도 활동을 했다. 그러다가 꾸란의 가르침과 무슬림의 신앙 행습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와 모순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 36세 때 이슬람을 거부하고 천신만고 끝에 고국을 탈출한다 [이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는 또 다른 저서 「이슬람과 테러리즘: 그 뿌리를 찾아서」 (서울: 글마당, 2009), pp. 29-54에 나옴].

이 책은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SECTION 1 이슬람 문화의 출현

SECTION 2 이슬람 문화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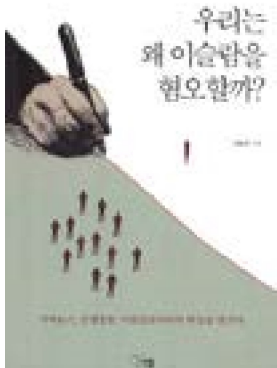
SECTION 3 이슬람 문화의 여인들

SECTION 4 이슬람과 서방 문화 충돌

SECTION 5 문화 충돌의 미래

저자는 현재 이슬람의 경향[이슬람 신학과 사고 방식]은 서구 문화와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므로, 이슬람 세계 내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새로운 이슬람 신학의 정립과 전파가 요구되고, 중동 내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설립 또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저자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는 읽는 이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 역시 한국인의 펜으로부터 생겨났다.



김동문 지음,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
(구리: 선울, 2015).

이 책은 한국의 교회와 사회에 만연한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의 헛된 실체를 밝히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저자는 아랍 세계에서 십 수년을 살았고, 그 이후에도 25년 넘게 아랍인을 이웃하며 지내 온 아랍통이다.

저자에 의하면 한국에는 2008년 전후로 좀더 조직적이고 공격적 형태의 이슬람포비아가 등장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슬람포비아의 근거 주장들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괴담”을 유포하기도 하고 “괴담”에 속아 헛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5부에 걸친 책의 내용 가운데 자세히 나타나 있다.

- 01 보이지 않는 존재의 두려움
- 02 두려움이 커져 혐오로
- 03 이슬람 괴담 팩트체크
- 04 혐오와 배제를 넘는 첫걸음

05 더불어 살아갈 우리 이웃

물론 저자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일 저자의 주장과 논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정한다면, 우리 중 누구에게도 이슬람포비아를 키우거나 유포할 권리는 없다고 하겠다.

둘째 범주: 무슬림 사역

이 범주는 무슬림 선교/무슬림 전도를 염두에 두고 쓴 책들을 망라한다. 두 권의 책자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모두 번역서이다.



샘 쉘로르프 지음,
김대옥·전병희 공역,
「무슬림 사역의 선교학적 모델」
(인천: 도서출판 바울,

저자인 샘 쉘로르프(Sam Schlorff)는 1959년부터 1995년까지 36년 동안 <아랍 세계 선교회>(Arab World Ministries, AWM)의 선교사로 활동했다. 이 책은 그가 1984년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서 신학석사(Th. M.) 학위를 위해 제출한 논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저자는 여느 저자와 달리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 좀더 토대에 해당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 선교의 근본 목표는 총체적 대체인가, 성취인가, 대화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 이슬람을 포함해 타종교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며, 또 이것은 우리의 접근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무슬림 문화 가운데에는 복음 전도를 위해 타당한 접착점이 될 만한 단서가 있는가?

이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되었는데 그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역사적 개관: 여섯 가지 상황화 모델들

서론에 해당하는 이곳에서 저자는 19세기 및 20세기 무슬림들을 사역 대상으로 하여 개신교 선교사들이 사용한 여섯 가지 모델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II. 근접 고찰: 방법론과 도구들

2부에서 저자는 이러한 모델들이 사용하는 방법론과 도구들을 좀더 자세히 검토한다. 예를 들어, 꾸란 사용에 대한 접근 방법들을 논하는 데 3장을 할애하고, 특히 꾸란을 어떤 의미에서 계시적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해석학”의 문제점을 다룬다. 마지막 장에서는 무슬림에 대한 교회 사역에 있어서 C5 혹은 “역동적 등가” 접근 방식을 고려하는데, 저자는 이 접근법의 역사적 발전, 모델 뒤에 자리잡은 세 가지 이론들, 이 논의에 있어서 주된 기여자들의 주장점을 언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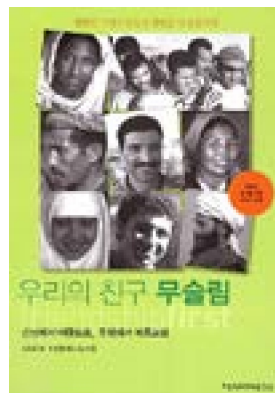
III. 성서신학적 상황화 모델을 향하여

마지막 섹션에서 저자는 자신의 제안인 바 “약혼”(betrothal) 모델에 대한 기초를 놓는다. 그는 선교의 주된 목표를 복음의 선포로 보되 무슬림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된 테마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타종교에 대한 신학적 평가에 있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또 전도를 위한

신학적 출발점은 꾸란이나 무슬림 문화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나서 꾸란의 해석에 있어 꾸란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을 함께 병합하려는 “종합적” 접근법을 비판한다. 저자의 모델은 선교에 대한 접근법, 종교 신학, 신학적 출발점, 초문화적 해석 및 교회적 전략 등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응축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샘 설로르트의 책자가 일치적으로는 무슬림 사역에 대한 선교학적 성찰서이지만 동시에 모든 선교 사역에 동반되는 부대적 이슈들을 고찰하는 데에 있어서도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무슬림 사역에 관한 또 다른 도서는 이슬람 선교 전문가의 안내서이다.



스티브 벨.
이슬람파트너십 지음,
「우리의 친구 무슬림」
(서울: 이슬람파트너십
및 IVP, 2016)..

이 책자의 원저자인 스티브 벨(Steve Bell)은 현재 <인터서브> 영국 및 웨일스 지역의 대표이다. 그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주로 이슬람학을 공부했고, 약 40년 간 선교 분석가 저술가 훈련가로서 봉사해 왔다. 공저자로 되어 있는 이슬람파트너십은 26개 단체와 개인의 연합체로서 이슬람 선교의 전문성 개발을 목표로 2010년 결성되었다. 상기 책자의 내용은 대부분 스티브 벨이 꾸렸고, 내용을 한국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한 것은 이슬람

파트너십의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자의 원제는 Friendship First (「우정이 먼저」)로서, 평범한 무슬림에 대한 우정 전도를 목표로 꾸며졌다. 사진과 도표가 많고 표현이 간명하지만 내용의 전문성만큼은 전혀 희석되지 않은 뛰어난 작품이라고 하겠다.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부 이슬람은 무엇인가?
- 2부 복음 증거의 장벽
- 3부 우정에서 복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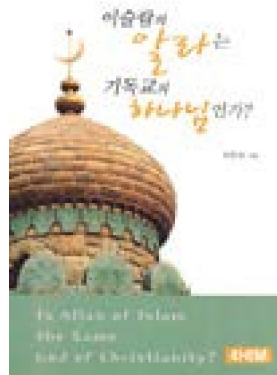
무슬림과의 우정, 사랑, 전도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최선의 안내서가 될 것이다.

셋째 범주: 알라와 하나님

마지막 범주의 책들은 오늘날 신학적으로 또 선교학적으로 가장 논란이 큰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 이슈는 한 마디로 해서 무슬림이 믿는 “알라”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신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우선 처음에 소개할 책자의 저자는 한국인인데, 그는 상기 문제에 대해 단호히 “아니오!”라고 응수한다.

저자는 이란 선교사로 약 20년 가까이 사역했고 현재는 이슬람의 정체를 알리기 위해 4H1M이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자에 흐르는 저자의 논조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특히 마지막 6부 “알라의 영”에서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못박고 있다



이만석 지음,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수정판
(서울: 4H1M, 2013).

상기 이슈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신학자 볼프이다. 그는 무슬림과 그리스도인이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로슬라브 볼프 지음,
백지운 옮김,
「알라: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은 같은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16). 2016).

볼프(Miroslav Volf)는 아다시피 전 세계의 신학계에서 인정을 받은 독보적 존재이다. 동유럽의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오순절 계통의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났는가 하면, 미국 풀러신학원에서 수학했고, 독일 튀빙겐 대학교에서 몰트만의 지도 하에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여러 저서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배제와 포용」(2012년 IVP 간)으

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볼프는 상기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이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전쟁과 참화로 얼룩진 과거의 역사와 테러와 보복의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날의 가학적 상황을 우려하며, 자신의 정치 신학적 아젠다가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조금이라도 더 화해와 평화로운 공존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책을 저술했다. 「알라」는 볼프의 신학적 예리함과 인간의 사회적 삶에 관한 불굴의 비전과 소신이 함께 묻어나는 역작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결국 이 논의의 타당성 여부(및 정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신앙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무슬림은 이 교리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판에, 이 문제를 쉬쉬한 채 양편이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우선, 그리스도인 편에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다. 논의의 초두에 볼프는 하나님의 단일성과 복수성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 니콜라우스 쿠자누스(1401-1464)의 네 가지 명제들을 소개한다 (p. 75). 그 가운데 첫째 항목이 “단일성(oneness)은 모든 복수성(plurality)에 선행하며, 모든 복수의 근원이다”로 되어 있는데, 필자로서는 이 명제가 왜 참인지, 또 무슨 의도로 이런 명제를 제일 앞에 내세우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것은 나 자신의 이해 부족일 수도 있고, 쿠자누스의 제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양자 모두일 수도 있다.)

삼위일체 교리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측면은, 과연 이슬람 쪽에서도 자신들이 그리스도

인들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다. 볼프는 꾸란의 근거를 들어 그렇다고 말한다. 특히 니콜라우스는 꾸란이 삼위일체를 ‘전제’한다고 믿었다(p. 78)고 되어 있다. 니콜라우스의 신념이 갖는 타당성이나 볼프의 주장이 얼마나 이슬람계에서 받아들여지는지 판정하는 일 또한 필자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기에, 무어라 소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쨌든 이것은 필자 편에서 더 알아보고 연구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런 점을 제외한다면 볼프의 논변과 제시는 눈부실 정도로 멋있다. (특히 내가 읽은 바로 삼위일체론에 대한 그의 설명은 매우 정통적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의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볼프의 주장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설명의 일부에 개재된 미심쩍은 내용과 또 나 자신의 역량 부족 때문에, 흔쾌한 동의를 표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미 이슬람과 무슬림 문화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다. 복음주의자로서 우리가 이슬람 세계에 대한 자세와 입장은 어때야 하는지, 또 무슬림에 대해 어떤 선교적 방침과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냉철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때가 되었다. 

.